

Name: 조진형

어르신을 위한 인공지능(AI) 돌봄 로봇을 개발·공급하는 마스터마인드가
하나벤처스를 통해 15억원 규모 '프리 A' 투자를 유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마스터마인드는 돌봄 로봇을 이용해 어르신들의 우울증과 치매를 평가,
정신건강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한 기업이다.
마스터마인드는 2017년 설립 후 인포뱅크, 벤처스퀘어에게 시드와 후속 투자를
유치하고 가솔 창업 투자 프로그램 팀스(TIPS)에 선정된 기업이다. 아바타톡
아키텍처 개발도 특허로 보유하고 있고 자연어처리(NLP) 기술로도 보유하고 있다.
회사는 2019년 서울 마포구청을 시작으로 30여곳 지자체에 돌봄 로봇을 공급했다.
최근에는 충청도와 울산광역시 등에 로봇을 제공했다. 서울 용대문구청 캐릭터로 제작된
'곰돌이'와 경상북도 의성군의 '자두'와 등이 모두 마스터 마인드가 제작한
돌봄 로봇이다. 이 로봇은 어르신의 정신건강 이상 징후를 발견하는 역할을 한다.
마스터마인드는 로봇과 어르신의 대화, 자기보고형 척도(SMCO, GDS) 등을 통해
슬독한 정보를 기반으로 어르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로 치매와 우울증, 자살, 고독사 등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또 이 로봇은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보조하는 역할도 한다. 능동대화 기능을 탑재해
하루에 10~20회 정도 어르신에게 꾸준히 말을 건다. 약 복용 시간을 알려주기도
하고 어르신과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퀴즈 대결도 한다. 김동원 마스터마인드
대표는 <AI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에게 인공지능으로 만든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어 이 사업을 시작했다"며 "사람의 일을 대체할 AI 비서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친구'를 만들어주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AI와 예술을 접목한 온라인 공간은 새로웠지만 아쉽기도 했다.
예술체험 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결과물의 품질도 사설 앱 기능에
비해 떨어지지 않았다. 커뮤니케이터 다운은 단순한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자막 기능이 없어 청각장애인 등 듣기 어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무용지물이다.